

韓-印尼, 철도·지능형 교통체계·IT 등 동반자적 경험추진

文 대통령-조코위 인니대통령 회담

수력발전·석유화학 등 성과 평가
인사행정·법제 등 행정역량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방문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게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철도 ▲역세권개발 ▲지능형 교통체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자동차 ▲정보통신 ▲농산품 등의 분야에서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두 정상은 경전철과 수력발전 등 인프라 분야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그간의 협력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5.8km) 구간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경전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철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시범 개통했고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현재 2·3단계 사업을 위해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달 18~20일 사이 예정된 평양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는 1965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시절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함께 방문하고 상호 공관이 상주하는 등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지난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남북 정상을 함께 초청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특히, 개

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손을 맞잡고 공동 입장하는 남북수단을 환영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8월2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관련 사진을 올리고 "이번 2018 아시안게임에서 남한팀과 북한팀은 한반도 깃발 아래 하나의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남북은 여자농구, 카누, 조정 종목에 58명의 단일팀을 출전시켰습니다. 이곳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한반도까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협력 외에도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 구축과 행정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인사행정 ▲법제 ▲전자정부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양국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 도입과 자카르타 비자신청센터 설립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의

비자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젊은 세대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입국 ▲경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협력에 대한 6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6000만명으로 세계 4위이며 GDP는 약 1조달러로 아세안(ASEAN) 중 경제규모 1위를 자랑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국빈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당시 조코위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저녁 두 정상 내외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만찬을 갖고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조코위 만난 황각규 “롯데, 경험 가교역할”

(롯데제주 부회장)

“스타트업 육성 등 다분야 협력”

인니 진출 방안 상호협력 논의

황각규 롯데제주 부회장은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방한중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롯데그룹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을 설명하고 상호협력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롯데케미칼 김교현 대표, 김중인 롯데마트 대표, 차원천 롯데컬처웍스 대표,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황각규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인도네시아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기간사업 투자, 문화사업 확대,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한층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롯데는 2008년 롯데마트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첫 진출해, 현재 롯데백화점, 롯데케미칼, 롯데GRS 등 11개 계열사가 약 9000명의 고용의 창출하며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10일 롯데 황각규 부회장(왼쪽)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오른쪽)을 만나 롯데그룹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을 설명하고 상호협력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제주

‘한-인니 동반자협회의’의 경제계 의장직을 맡아 민간차원에서 양국 경제계간 투자 및 협력 강화에 앞장서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최근 롯데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양국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빈탄주에 위치한 롯데케미칼타이탄 인근 부지에 약 4조원 규모의 화학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 법인을 설립한 롯데컬처웍스는 올해 현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롯데자산개발은 인도네

시아 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현지 부동산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암베신도(AMV ESINDO)와 MOU를 체결하고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롯데는 현지에 진출해있는 유통사의 인프라를 스타트업의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고, 암베신도는 우수한 현지 스타트업을 롯데에 소개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대한상의, “기업인들 경험에 지원할 것”

인니 대통령 초청 산업협력 포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가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빈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및 정부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워란토 정치·사회조정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 아르랑가 하타토 산업부장관,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그 이후 한국에선 신남방 정책 추진 체계가 확대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면서 “이번 포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경제인들이 와주신 점도 양국 경험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앞줄 왼쪽 두번째부터)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印尼, 산업협력 관련 MOU 15건 체결

인도네시아 정상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조성 등 산업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15건을 체결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에서 양국 기업이 추진 중인 MOU 15건이 체결됐다.

MOU는 발전사업, 공작기계 공동개발, 엔진공장 건설, 석유화학공장 건설, 화장품 생산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신도시·역세권·주거시설 개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향후 이 MOU를 근거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협력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포럼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제조업 협력 확대 ▲인프라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협력 강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협력 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백 장관은 “양국은 초기 봉제, 신발 등 경공업을 거쳐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로 제조업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차, 공작기계, 엔진, 화장품 등으로 협력 분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CJ보유 제조기술·역량 인니와 나눌 것”

손경식 CJ그룹 회장, 인니대통령 면담

CJ그룹은 손경식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손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CJ그룹은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CJ가 보유한 제조기술과 문화 및 서비스사업 등에서 쌓아온 역량을 함께 나누는 한편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조코위 대

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CJ의 문화사업 및 바이오 생물자원 등 제조업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6년 5월 상암동에 위치한 CJ ENM센터를 방문하는 등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는 CJ그룹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J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 허민회 CJENM 대표, 서정 CJ CGV 대표, 손용 CJ 인도네시아 지역본부장 등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조코위 대통령, 아이

르랑가 하르다르도 산업부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 토마스 램봉 투자조정장,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CJ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 13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투자했고 사료·축산, 베이커리, 극장, 물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1만4000여명에 이르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미래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영화 제작 전 과정을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토토의 작업실’, 선진 제빵 기술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제빵훈련원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 취약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인용 기자